

# 한동훈 용인술, '파격 인사' 보단 '당·대 검증 인물' 중용

### 비대위원, 당 영입 인사로 거론된 인물 주 이뤄 공관위원장, 대법원장 후보군...윤 오찬 참석기도 공관위 구성·인재 영입...“당 가치 부합 최우선”

총선 지휘봉을 잡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용인술은 '파격'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둔 듯하다. 앞서 당과 대통령실 등에서 한 차례 검증을 거쳤던 인물을 중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새 지도부 체제를 꾸리는 과정에서 잡음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또 겨우 정계에 입문한 터라 인재를 발탁할 만한 풀을 갖고 있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7일 국민의힘 비대위원 명단을 보면 이미 당에서 영입한 인물과 꾸준히 영입대상으로 거론돼 온 인물들이 주를 이룬다. 먼저 21세로 최연소 비대위원인 윤도현 자립준비 청년 지원(SOL) 대표과 '이재명 저격수'로 이름을 알린 구자룡 변호사는 당 인재영입위원회의 1차 영입 인재들이다. 바뀌 말하면

이들은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발탁한 인물들이기도 하다. '조국 흑서' 저자로 유명한 김경을 의원은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류 인사 가운데 한명으로 꼽힌 바 있다. 박은식 위원도 '인요한 혁신위원회' 후보군으로 이름을 오르내렸고, 노인 폼바 발언으로 물러난 민경우 전 위원 역시 비슷한 케이스다. 시각장애인 비례대표인 김예지 비대위원의 경우 직전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맡기도 했다. 얼마 전 임명된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장 후보군에 오른 바 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찍어둔 인물이라는 말도 돈다. 정 위원장이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역임할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 의견을 냈는데, 이후 눈에 들었다는 거다. 실제로 정 위원장은 2022년 12월 윤 대통령 주재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범치주의 확산 방안'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바 있다. 한 위원장과도 활동 시기가 맞닿는 지점이 있다. 정 위원장은 앞서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참여했던 2022년 6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같은 해 8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당 내부에서는 공천의 키를 쥔 한 위원장과 정 위원장이 모두 범조인 출신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관위원 명단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 한 위원장은 지난 5일 경기도당 신년인사회를 마친 뒤 '공관위원장이 범조인 출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의에 "그걸 왜 비판하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총선을 겨냥한 당의 인재 영입도 오는 2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당직을 맡은 한 의원은 "당의 가치와 부합하



는 인사인지 여부가 최우선 순위"라며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의 가치와 맞는다면 누구든지 적극 모셔 올 것"이라고 전했다. 김희면 기자



## 서동욱 전남도지사 '양성평등 사회 실현' 다짐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지난 5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전남남도 여성지도자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전남도의회에서도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최두례 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해 도·시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공연과 신년하례, 격려사, 축사, 떡케이크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서동욱 의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제 성평등 순위는 아직도 하위권이고 취업·임금 등 유리전장은 여전하다"며 "특히 20대 여성 취업률은 남성보다 높지만 출산·양육기에 접어든 30대에는 경력단절로 인해 역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인구소멸에 대응한 청년인구 유출방지 활동을 여성단체 아젠다로 선정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여러분의 포부에 힘찬 응원을 보낸다"며 "앞으로도 섬세하고 너그러운 리더십으로 양성평등 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타내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제 성평등 순위는 아직도 하위권이고 취업·임금 등 유리전장은 여전하다"며 "특히 20대 여성 취업률은 남성보다 높지만 출산·양육기에 접어든 30대에는 경력단절로 인해 역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인구소멸에 대응한 청년인구 유출방지 활동을 여성단체 아젠다로 선정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여러분의 포부에 힘찬 응원을 보낸다"며 "앞으로도 섬세하고 너그러운 리더십으로 양성평등 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민주 "이재명 복귀 시점 특정 어려워...당무 정상 진행 노력"


### "어느 시점 퇴원하고 당무 복귀한다는 건 근거없는 추정" "당무 정상적 가동 위해 노력...다음 주 인재영입 발표" "대통령실 병문안 연락 받은 것 없고 보고한 사람도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 시점과 관련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당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기 당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대표의 당무 복귀 시점에 대해 "당분간 아니다. 시기를 특정하지 말아 달라"고 언론에 당부했다. 권 실장은 이 대표의 상태에 대해 "일단 수술한지 얼마 안돼서 차도가 급격히 좋아질 가능성 없다"며 "회복 중에 있고 식사는 병원 제공하는 죽으로 식사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가 현재 가족들만 만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집도의 브리핑에서 밝혔지만 혈관수술이라는 게 나중에 후유증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서 절대 안정 속에서 회복치료를

를 전담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며 "환자와 가족은 당부에 잘 따르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권 실장은 "퇴원 여부는 병원에서 언급한 적도 없다. 수술 끝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퇴원하고 당무 복귀한다는 건 근거없는 추정"이라며 "아무 근거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다. 이어 "대표가 조속히 당부에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며 "대표는 회복치료를 받으면서 조속히 당무에 복귀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 실장은 "당은 대표가 안 계셔도 당무는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미뤄졌던 인재영입도 다음 주부터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병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연락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다고 보고한 사람도 없고 연락받은 것도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 대표가 병상에서 당무 관련 보고를 받는다는 질문에 "병상에서 당무 보고를 받고 있다는 것도 추정이다. 병원 지침과 위배되는 주장"이라며 "김남준 당대표실 정무부실장과 천준호 비서실장이 필요시에 병원을 방문하고 있다"고 했다. 김수권 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b>기사제보</b> (062) 222-2580	<b>광고문의</b> (062) 228-2580
----------------------------------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 직통전화 010-2400-7774  
☎ 주문팩스 062-946-0053